

도시소공원으로서 학교공원의 활성화 방안

Activation Plan of School Parks as Pocket Parks

남미아¹ · 이은희²

¹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원예학과 · ²서울여자대학교 환경생명과학부

I.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서울의 시민 1인당 생활권공원면적은 4.58m²로 파리의 17.88m² 등과 비교해 볼 때 매우 작은 것을 알 수 있다(서울특별시, 2002). 도심에서 공원용지를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에서 서울시 “생활권녹지 100만평 늘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학교공원화사업을 통해 기존에 조성된 공간을 도시소공원으로서 적극적으로 이용한다면 그 활용적 가치가 클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서울시 학교공원화사업으로 조성된 학교들의 현황을 분석하고, 학생들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소공원으로서 학교공원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II.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의 조사 대상지는 2001년 서울시 학교공원화사업 대상지 초등학교 중 각 구별로 1개교씩을 선정하였다. 2001년 대상지 중 초등학교가 없는 4개의 구(동대문구, 도봉구, 구로구, 금천구)를 제외하고 21개 초등학교가 대상지로 선정 되었으며, 조사기간은 2004년 7월 15일부터 2004년 9월 19일까지이다. 대상지 초등학교를 답사하여 조사한 내용은 시설물 현황, 학교공원 공간구성 형태, 식재식물 현황으로 구성 하였고 문제점들을 도출하여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III. 결과 및 고찰

1. 사례조사 분석 현황

(1) 공간구성 형태

공간구성 형태는 크게 가장자리 조성형, 포인트형, 전체 조성형 등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가장자리 조성형은 좁은 화단을 이용하여 운동장 주변과 교사 앞을 녹화한 유형으로 총 7개소에서 볼 수 있는 유형이다. 벤치 이외에는 설 수 있는 공간

이 없는 공원과 가장 거리가 먼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특정한 면적을 조성하여 강조한 포인트형은 조사 학교 중 8개소로 주로 야외학습장이나 연못을 조성한 학교에서 많이 발견되는 유형이다. 학습과 휴게가 가능하도록 조성되어 있으나 협소한 공간에 조성되어 활발한 이용에는 한계가 있다는 단점이 있다. 마지막으로 학교부지 일정면적 전체에 면상 또는 선상으로 공원을 조성한 전체 조성형은 6개소로 비교적 넓은 면적에 조성되어 있어 다양한 식재가 가능하며, 파고라나 정자 등 휴게시설 및 운동시설을 설치하여 학생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이용도 활발한 곳으로 조사되었다(표 1).

표 1. 학교공원의 조성형태별 분류

단위 : 개소

가장자리 조성형		포인트형	전체 조성형	
직선형	곡선형		선형	면형
5	2	8	4	2

(2) 학교공원과 주변과의 연계성

학교공원과 주변과의 연계를 살펴보기 위해 학교 전체의 경계부위를 조사하였다. 학교경계는 여러 가지 형태로 조성되어 있는데 방음벽이나 벽돌담과 같이 폐쇄적인 담장을 사용하여 주변과 차단을 시킨 학교는 11개소였으며, 돌담에 철주를 사용한 것과 같이 반만 학교 내부가 들여다보이도록 한 경우나 학교 담을 허물고 철망을 설치하여 들어갈 수는 없으나 시각적으로 외부와 학교를 연계시킨 곳은 반개방형으로 19개소에서 조사되어 가장 많은 유형이었다. 마지막으로 개방형은 담장의 일부 분이라도 완전히 허물어 학교 내부가 보일뿐만 아니라 들어갈 수 있도록 조성된 곳을 말하며 총 8개 학교에서 볼 수 있었다.

(3) 학교공원의 접근성

학교공원 이용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접근성은 매우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이다. 학교공원을 이용하기 위해 교문을 통과하지 않고 인도에서 직접 진입이 가능한 학교는 21개소 중 8개소로 인도에서 학교로 들어갈 수 있는 계단을 설치했거나 개방을 해서 주민들의 이용이 활발하였으며, 언제나 이용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었다. 그러나 나머지 13개 학교들의 경우 교문을 통과해야지만 공원을 접할 수 있어 운동장 개방

시간에만 공원을 이용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4) 학교공원의 시설물 현황

학교공원에 설치된 일반적인 시설물은 다음과 같다(표 2). 벤치는 조사학교 전체에서 볼 수 있었으나 개수가 많지 않아 이용에 어려운 곳도 있었으며, 정자는 7개소에만 설치되어 학교공원 내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였다. 또한 야간이용자를 위한 조명은 9개소에, 공원관리를 위해 필요한 휴지통 같은 시설물은 8개소에만 설치되어 있어 절대 부족한 실정이다.

표 2. 학교공원의 시설물 현황

시설물종류	파고라	벤치	휴지통	조명	음수대	스탠드	정자	안내판	관리실	주차장
개소	15	21	8	9	20	7	7	1	3	15

(5) 학교공원 식재식물 현황

학교공원은 식물원식으로 대부분 교육을 목적으로 다양한 수종이 심겨져 있다. 대상지 조사결과 상록수는 32종으로 향나무와 회양목이 조사 학교 전체에 식재되어 있었으며, 낙엽수는 100종으로 느티나무, 은행나무, 단풍나무 순으로 많이 식재되어 있었다. 상록수와 낙엽수의 비율은 각각 24.2%, 75.8%로 낙엽수종이 3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초본류는 다년생 초화류, 1·2년생 초화류, 채소류, 수생식물 순으로 많이 식재되어 있었다.

3. 문제점 및 개선방안

첫째, 공원조성에 있어 면상의 공간조성이 필요하다. 학교공원 유형 중 가장자리 조성형은 총 7개소이며, 전체 조성형의 경우에도 선형으로 조성된 학교가 면형보다 2배나 많다. 학교 내부까지 깊이 들어가지 않고도 인근 주민들이 이용 가능 하도록 면상으로 조성하며, 인도에서 공원으로 연계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학습이나 관찰 위주의 공원 보다는 학습과 휴계가 동시에 가능하도록 조성을 해야 학생들과 주민들 모두 활발한 이용이 가능할 것이다.

둘째, 주변과의 연계성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담장은 주변과 학교를 차단시키는 폐쇄형을 피하고 시각적 연계가 가능한 반개방형이나 개방형으로 생울타리 등

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벽면녹화나 전면공지를 조성할 경우 각각 5.33%, 2.78%의 녹시율 증진효과를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시각적으로 외부와 내부가 연계 되도록 조성하면 도시 생태계 개선 측면에서도 효과적이다.

셋째,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학교공원을 조성해 놓은 곳에는 인도에서 곧장 진입이 가능하도록 개방된 길이 있어야 주민들의 활발한 이용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공원이용 활성화를 위해 이용 가능한 시설물 확충이 필요하다. 학교공원에 설치된 시설물 중 휴게쉼터로 주로 이용되는 정자나 파고라 같은 시설물 수를 늘리고, 조명과 휴지통 등을 충분히 구비하여 공원관리 및 이용을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테니스장과 배드민턴장 같은 운동시설은 지역주민들이 활발히 이용할 수 있는 시설물로 지역과 학교가 연계하여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다.

다섯째, 식물원식으로 다양한 식물을 나열하여 식재하기보다는 조성된 공원 주변을 중심으로 녹음수를 심고 다층식재 등을 통해 생태적인 배식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IV. 결론

학교공원화 사업을 통해 학교녹화나 특화사업 등이 추진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학교가 도시 소공원으로서의 역할을 하기에는 미비한 것으로 보인다. 학생들의 이용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주민들을 위한 녹지공간으로 학교공원이 활용되기 위해서는 보다 연계성, 접근성, 시설의 편의성, 생태적 배식 등을 고려한 설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